# 알베르 카뮈의 현실관 연구\* -『반항인』을 중심으로-

김진식 프랑스어 · 프랑스학과

#### 1. 『반항인』의 마르크스주의 비판

. 알베르 카뮈는 『반항인』에서 당대 현실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반항인』에서 행하고 있는 소련 체제, 특히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르트르를 위시한 좌파계열의 지식인들과의 격한 논쟁(반항인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논쟁이 결국 사르트르와 결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카뮈는 왜 이 같은 분쟁을 유발하는 글을 쓴 것일까? 『반항인』과 관련이 되는 쪽지에 남긴 카뮈의 다음 글을통해 우리는 그가 『반항인』을 쓰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가끔 이 시대가 싫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상주의자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비열하고 아무리 난폭하다 하더라도 이 현실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을 담고 있는 거짓말들입니다. (러시아는) 오늘날 감시의 망루가 설치되어 있는 노예의 땅입니다. (…) 이런 수용소 체제가 자유의 수단이라고 그리고 미래 행복의 산실이라고 찬양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가 끝까지 투쟁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정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진실 그 자체,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진실을 향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필요로 할뿐입니다.1)

<sup>\*</sup> 이 논문은 2000학년도 울산대학교 연구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음.

<sup>1) &</sup>quot;Je hais parfois mon époque. Je ne suis pas un idéaliste. Et ce ne sont pas ces

한 마디로 말하자면, 카뮈가 싫어하는 것은 비열한 현실이 아니라, 비열한 거짓말이다.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 공산주의 소련의 진면목에 대해 애써 부정하는 당시 지식인들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이 시대'란 당시 인류가 기댈 수 있는 미래로 보였던 공산주의 소련이 갈수록 집단수용소의 모습을 띠고 있던 시대를 말한다. 소련 공산 체제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지식인들, 특히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지는 진심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허위의식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혁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공산세계의 참상-경찰체제와 집단수용소-에 대해 아무도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들은 혁명의 참상을 분식(粉飾)하고 있었고, 타인들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2〉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리얼리스트'라고 믿고 있었다.3〉

réalités, si abjectes et si cruelles soient-elles, que je hais. Ce sont les mensonges où elles se vautrent. (La Russie est) aujourd'hui une terre d'esclaves balisée de miradors (…). Que ce régime concentrationnaire soit adoré comme l'instrument de la libération et comme une école du bonheur futur, voilà ce que je combattrai jusqu'à la fin... Une seule chose au monde me paraît plus grande que la justice: c'est sinon la vérité elle-même, du moins l'effort vers la vérité. Nous n'avons pas besoin d'espoir, nous avons seulement besoin de vérité." 1952년이라고 씌어진 서류철 안에 들어있는, 1950년에서 1952년 사이에 쓴 편지의 한 조각. 장과 카트린느 카뮈 재단 소장. Olivier Todd, Albert Camus, une vie, Gallimard, 1996, p545.에서 재인용.

<sup>2)</sup> Cf. Olivier Todd. Ibid.

<sup>3) 1946</sup>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욕에서 행한 강연에서 카뮈는, 오늘날 지식인들(좌파지식인: 인용자)은 만약 히틀러가 이겼다면 역사는 공포정치를 인정해주고 정당화해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이들은, '점령자들은 <역사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지긋지긋한 혜델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또한 카뮈는, 생각이나행동에서 사실주의적이거나 환상적인 생각은 모두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당시 프랑스 지식인 사회를 두고 그는 또 "오늘날 프랑스와유럽에는 인간조건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이라고 보고, 어떤사건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세대가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바 있다. Olivier Todd, *Ibid*, p.404 참조.

당시에 마르크스를 비판한다는 것은 지식인 세계에서 파문 당할 각오를 무릅써야 할만큼 위험한 것이었다. 프랑스 지식인 세계가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던 과정을 자니브 게렝 Jeanyves Guérin은 이렇게 묘사하고있다.

메를로-퐁티가 『현대』지 창간호에 "우리는 역사를 배웠다"고 쓰면서 신학-정치적으로 새로운 공통어koïné를 예고한다. 그러자 사르트르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다"고 맞장구친다. (…) 분파적이고 전투적인 철학적 개념이 널리 퍼진다. 이때부터 역사 속에서만 진리가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가들이 많아졌다. 이것은 곧 진리의 정의는 또한 모럴의 정의도- 이때부터 '실용주의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이제는 정의와 진리에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과 민중에 맞느냐가문제였다. 가치는 행동의 결과에 있었다. 성공하면 진실이고 실패한 것은 거짓이었다. 정복자는 옳고 패배자는 틀렸다. 이긴 자가 이겼다. 사용하는 방법을 놓고 시간을 끄는 것은 필요없는 짓이었다.6)

<sup>4)</sup> Jean-Paul Sartre, <La nationalisme de la littérature>, Situations II, Gallimard, 1987, p.41.

Vincent Descombes, Le même et l'autre. Quarante-cinq ans de philosophie française, Minuit, 1978, p.28.

<sup>6) &</sup>quot;Ecrivant: <Nous avons appris l'Histoire> dans le premier numéro des Temps modernes, Merleau-Ponty annonce la nouvelle koïné theologico-politique. Sartre lui fait écho: <Nous vivons dans l'histoire comme des poissons dans l'eau>. Très vite les poissons deviendront rouges...Une conception sectaire et militante de la philosophie se répand. De nombreux auteurs tiennent désormais aquis qu'il n'y a de vérité pour une pensée que dans l'histoire. Cela signifie que la définition de la vérité- mais aussi de la morale- est désormais pragmatique>. Il ne s'agit plus d'être pour la justice ou la vérité, mais d'être avec le parti p ou le peuple. La valeur est au bout de l'action. Est vrai ce qui réussi et faux ce qui échoue. Le vanqueur a raison, le vaincu a tort. Ceux qui ont gagné, ont gagné. Il est inutile de s'attarder sur les motens qu'ils ont utilisés." Jeanyves Guérin, <Camus, philosophe pour les classes terminales?> in Anne-Marie Amiot et Jean-François Mattéi ed, Albert Camus et la Phulosophie, PUF, 1997, p.93. ② 圣는 인용자.

'역사 속에만 진리가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조는 곧 '가치는 행동의 결과에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 흔히 말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계랭은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식의 풍조가 소위 '실용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인간행위의 참/거짓을 판가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하는 손쉬운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계랭이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의 '실용주의' 적인 방법일 것이다. 결과를 가지고 판가름하기가 그만큼 손쉽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실용주의적 방법은 곧장 '이긴 자가 이겼다'라는 동어반복으로 이어지면서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성공하면 진실이고 실패하면 거짓이 되고'만다. 문제는 이런 실용주의적 태도는 결국 '어떤 것도 진실도 아니고 어떤 것도 거짓도 아니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는 데에 있다. 이런 사태가 몰고 올 미래의 위험에 대해 『반항인』은 이렇게 경고한다.

어떤 것도 진실도 아니고 어떤 것도 거짓이 아니라면 그 규칙은 자신을 가장 효율적인 것, 즉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정의로운 자와 정의롭지 않은 자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노예로 나뉘게 될 것이다.7)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카뮈는 결과의 숭고함이 수단의 가혹함을 정당화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모든 모럴의 가치와 원칙을 없애고 그 대신에 일시적이지만 실제적인 왕인 **사실이 설치게 되면**이미 보았듯이 개인적 사실이나 국가적인 면에서나 정치적 파렴치로만나아가게 될 것"<sup>8)</sup>이라는 예언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일시적이지만 실제적인 왕인 사실이 설치는' 세상일 것이다.<sup>9)</sup>

<sup>7)</sup> Albert Camus, L'Homme révolté, Essais, p.415.

<sup>8)</sup> Albert Camus, L'Homme révolté, Ibid., p.551. 강조는 인용자.

<sup>9) &#</sup>x27;사실'의 대척점에 우리는 '상상'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꿈과 상상력이 활동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사실 마르크스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반대파에게 비판을 받았던 카뮈가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10) 널리 알려져 있듯이 카뮈는 청년기에 알제에서 공산당에 가입하여 세포조직으로 활동하다가 탈당한 적이 있다. 공산당을 탈당할 즈음에 쓴 것으로 보이는 그의 수첩에는 "내면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절부터 카뮈는 공산계열의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11) 그러나 카뮈는 올리비에 토드의 말처럼, 사회적 혁명을 통해 '궁핍의 왕국이 자유의 왕국으로 바뀔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12) 하지만 공산진영의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는 알제 시절부터 가슴에서부터 전적인 동의를 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알제 시절에 쓴 「40시간론」이란 글을 보자.

나는 경제의 우선권이란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좌익은 상반된 원칙을 번갈아 가면서 정당화하고 있다. 그들은 40시간을 지지하게 했다가는 그것을 페기하였다. 언젠가는 과잉생산에 대해 불평을 하다가 그 다음날엔 생 산중가를 위해 48 시간을 주장하고 있다.<sup>13)</sup>

이 '상상의 세계'라면 논리와 계산과 경제원칙이 설치는 세상을 '사실의 세계'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상상이 설자리가 좁아지고 오로지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되는 이런 세계는 바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경쟁력'을 가치로 인정하는 '경쟁하는 사회', 즉 지금 우리의 사회 모습일 것이다.

<sup>10)</sup> 사르트르를 위시한 『현대』지 진영에서는 카뮈가 마르크스를 제대로 통독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는데, 이는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카뮈가 마르크스를 다 읽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음 제니브 게렝의 다음 지적처럼 그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의 유효성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카뮈)는 마르크스를 선택적으로 부분부만 읽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말이 유효한가 아닌가 이다. 그가 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역사주의적이고 반전체주의적인 근본적인 비판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그의 비판이 당시 조류에 어긋났다는 것일 것이다." Jeanyves Guérin, Ibid, p.86.

<sup>11) 1937</sup>년 12월, Olivier Todd, Ibid, p 153,에서 재인용,

<sup>12)</sup> Olivier Todd, Ibid, p.153.에서 재인용. "의 내용은 『자본론』 3권에 있는 표현.

<sup>13) &</sup>quot;Je ne sais pas s'il y a une primauté de l'économique. Mais je vois qu'elle(la

6

좌익계열의 일관되지 못한 노선을 비판하고 있는 이 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카뮈 생각의 한 조각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들 좌파가 주장하는 목표도 실은 '생산량의 증가'에 있다는 생각이다.14) 이런 생각은 『반항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마르크스의 과학적 메시아 사상은 그 자체가 부르주아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진보, 과학의 미래, **기술과 생산의 숭배** 등등은 모두 19세기에 교의로서 확립된 부르주아적 신화들이다.<sup>15)</sup>

마르크스의 사상도 실은 부르주아 사상에 그 뿌리가 있으며 이것은 결국 기술, '생산의 숭배'에서 나온 것이라는 카뮈의 생각은, 마르크스주의 자들이 주장하는 혁명적 사회도 그 뿌리에서 보자면 이들이 비판하는 자본주의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회의 정치 형태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히 의지하고 있는 기술문명의 신조가 문제된다.<sup>[6]</sup>

결국, 자본주의 사회와 혁명적 사회는 둘 다 산업생산이라는 똑같은 수단, 똑같은 약속에 얽매여 있는 만큼 하나의 사회에 지나지 않는다. (…) 생산사회

gauche) justifie tout à tour des principes opposés, qu'elle fait voter les quararnte heures et qu'ensuite elle les enterre, qu'elle se plaint un jour d'une crise de surproduction et que, le lendemain, elle réclame les quarante-huit heures pour accroître la production." <Essai sur les quarante heures>, Olivier Todd, Ibid, p.154에서 재인용. 강조는 인용자.

<sup>14) &</sup>quot;『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생산력의 발전'은 계급투쟁과 공산주의의 세계적 도래를 위한 필요불가결한(sine qua non) 조건이라고 보면서 '만약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빈곤이 일반화되고 생필품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오래된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Paul Dumouchel et J.-P.Dupuy, L'Enfer des Choses -René Girard et la logique de l'économie, 1979, p.137

<sup>15)</sup> Albert Camus, L'homme Révolté, Ibid., p.598. 강조는 인용자.

<sup>16)</sup> Ibid., pp.620-621

는 오직 생산적일 따름이지, 창조적인 것은 아니다.17)

'생산사회'는 결국 생산량의 증가가 인류의 행복을 담보해줄 수 있다고 믿는 '신화의 사회'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산사회의 또 다른 형태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카뮈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벨상을 수상 하러 스톡홀몸에 갔던 카뮈는 자본주의, 그게 아니면 적어도 그가 '상품 사회'라 부르는 사회를 거부하였다. 소위 상품사회는 "자유를 독점적이고 일면적인 관례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자유를 하나의 의무보다는 하나의 권 리로 간주하고는 사실상의 탄압을 위해 겁도 없이 가능한 한 자주 원칙 상의 자유를 설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8)

. 나아가서 자본주의는 "이제 더 이상 사라진 덕목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사회의 악덕으로 유지된다"는 말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그는 자본주의라고 해서 공산주의보다 크게 나은 것은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다. 19) 자본주의는 '미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악덕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카뮈의 이 직관은 사실 오늘날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

### 2. 역사주의 비판

『반항인』이 행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비판이 자본주의와 같은 수단인

<sup>17)</sup> *Ibid.*, pp.675-676.

<sup>18)</sup> Olivier Todd, Ibid, p. 705 참조.

<sup>19)</sup> Olivier Todd, Op.cit.., p.577.참조.

<sup>20) &</sup>quot;성장경제학의 근간에 놓여있는 잘못된 가정들을 고려하면, 기존의 경제학이 '진보'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들은 좋게 말해서 부분적인 유효성밖에 없고, 나쁘게 말하면 전혀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Paul Ekins, *The Living Economy*, London, Routledge, 1986. in 『녹색평론』, 26호. 1996년 1-2월호.p.61에서 재인용.

생산성 신화와 목적의 수단 정당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카뮈는 마르크 스주의가 주장하는 역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던지고 있다.

당시의 마르크스주의가 당시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는 다음 게렝이 잘 말해주고 있다.

작가들은 자주 '역사', '정치', '혁명', '부르주아', '계급투쟁', '지배 이데올로기' 와 같은 '위대한 낱말들'을<sup>21)</sup> 갖고 노는 마르크스 풍을 즐기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호흡하길 좋아했다. 이 위대한 낱말은 마치 암호와 같았다. 사람들은 마르크스를 그가 해겔을 읽는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스탈린이 레닌을 이용하는 식으로 읽었다. 마르크스-레닌을 언급하는 것은 종합보험에 드는 것과 같았다.<sup>22)</sup>

그런데 당시에 이처럼 팽배해 있던 필연적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은 카 뮈만의 것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사상가로 우리는 칼 포퍼를 들 수 있 을 것이다.

포퍼도 카뮈처럼, 모든 페스트와 폭력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의 섭리란 없고, 인간은 랑베르와 리유처럼 부정에 대해 싸움으로써역사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포퍼도 전체주의를 증오하였다. 그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은 과학적 역사주의의 뿌리를 찾아서는, 그가 플라톤에서 헤겔로 이어져서 마르크스에 와서 그 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던 당시의 형이상학적-정치적 전통을 잘라버린다.<sup>23)</sup>

<sup>21)</sup> Roland Barthes par Roland Barthes, Seuil, 1978, p.129. 바르트는 여기서 '모호하면서도 끈질긴' 이런 낱말들은 '여러 가지 시니피에의 자리를 점령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sup>22) &</sup>quot;Souvent les auteurs se contentent de humer l'air du temps qui est marxomane et de jongler avec les <grands mots>, <Histoire>, <politique>, <révolution>, <bourgeoiie>, <lutte des classes>, <idéologie dominante>, etc. Ces grands mots sont des mots de passe. On lit Marx non comme lui-même lisait Hegel mais comme Staline utilisait Lénine. La référence marxiste-léniniste est une garantie multirisques." Jeanyves Guérin, *Ibid*, p.91.

<sup>23)</sup> Cf. Olivier Todd, Op.cit.., p.431.

카뮈는 지나치게 역사적 필연성을 결부시키다 보면 남는 것은 '효용성'이라는 규칙만 강조된다고 이렇게 경고하는데, 이 '효용성'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게렝이 지적하고 있는 '실용주의'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질곡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적 필연성**에 연루시키는 것은 인간에게서 우선 투쟁의 이유를 빼앗아서 **효용성**이라는 규칙만 갖고 있는 아무 당파에나 빠뜨리는 것과 같다.<sup>24)</sup>

사실 역사의 필연성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만약 그래야 한다면 집 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카뮈는 이런 식의 논리에 대해 끝까지 반항한 것 이라 할 수 있다.<sup>25)</sup>

#### 3. 오늘날의 평가

당시 프랑스 지식인 사회 특히 생-제르멩-데-프레의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논쟁에서 사르트르가 승리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에 와서 그 논쟁을 되돌아본 사람들은 사르트르의 완전한 승리도 아니었다고 선언한다.26) 사실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르트르에게 승리의 표를 던지고 있었다.27) 앞에서 살펴본 마르크스주의에 젖어

<sup>24)</sup> Albert Camus, 《Lettres sur la Révolte》, Essais, p.770. 강조. 인용자.

<sup>25)</sup> 카뮈의 이런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으로 우리는 『정의의 사람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sup>26)</sup> Jean Daniel, <sup>®</sup>Le temps quì reste<sub>3</sub>, in Herbert Lottmann, *Ibid.* p.515 와 n9.에서 재인용.

<sup>27)</sup> Herbert Lottmann, Ibid. p.516. 참조. 또한 우리는 카뮈와 사르트르 사이를 쥬네브 인이던 루소와 파리지엥이던 볼테르 사이에 빗대고 있는 게렝의 다음 지적처럼, 본토의 인델리 집안 출신인 사르트르와 식민지 알제리의 노동자 집안 출신인 카

있던 당시 프랑스 지식인 사회를 염두에 둘 때, 카뮈의 입장이 비판받았 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변했다.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중언을 들어보자.

카뮈는 레이몽 아롱보다 먼저, <살인자도 희생자도>에서 "이데올로기의 종 언"을 주장한 바 있다. 또 그는 프랑스 민주주의 좌파에게 진보주의의 신화와 역사에 대한 헤겔-마르크스의 철학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데, 그러나 프랑스 좌파가 이 진부한 사상을 던지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뒤의 일이다.<sup>28)</sup>

『반항인』에서 행한 카뮈의 소비에트 비판은,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더이상 소비에트에 대한 망상이 지탱될 수 없는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원군을 얻은 격이라 할 수 있다.<sup>29)</sup> 이를 두고 우리는 당대 지식인 사회 풍토를 무릅쓴 카뮈의 용기, 혹은 시대를 건너 뛴 작가의 직관적 예언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영국의 『Spike』지와 인터뷰한 알베르 카뮈의 딸 카트린 카뮈의 다음 지적은 『반항인』으로 불거진 당시 프랑스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와 그 안에서 난처했던 카뮈의 입장을 잘 전해주고 있다. 카트린 카뮈는 < 반항인 논쟁>의 의미와 함께 이 논쟁으로 인해 카뮈가 겪었던 오해와 평가절하를 전하면서 이와 함께 카뮈가 오늘날에 와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다.

오늘날 지식인들이 카뮈에게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조짐이 보입니다.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역사는 그들의 입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카

뮈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묘한 선입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카뮈와 사르트르의 관계는 루소와 볼테르, 프루동과 마르크스의 관계와 비슷하였다." Jeanyves Guérin, *Op.cit.*.p.95.참조.

<sup>28)</sup> Jeanyves Guérin, Op.cit.., p.95

<sup>29) &</sup>quot;오늘날 마르크스주의와 소련에 관한 글을 읽는 사람은 이(『반항인』) 분석의 시의 성과 유효성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Jeanyves Guérin, *Op.cit...*, p.97.

위에 대한 반대도 사실 언제나 공산주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정치적인 문제였는데,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카뮈는 스탈린 정권의 집단수용소와 인민재판을 고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소련에 집단수용소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신성모독적인 것으로서 정말 심각한 사태를 낳는 말이었습니다. 30)

이 인터뷰에 동행한 로베르 갈리마르도 당시 분위기와 지금의 변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그 뒤 80년대 동안 베르나르나 글릭스만 같은 프랑스의 신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카뮈는 정치적인 원형경기장에서 어느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르트르의 영향력에 무릎을 꿇어 소련에서처럼 공산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인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카뮈가 옳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카뮈에 대한 견해는 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그를 좋아하지 않던 지식인들이 지금은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학으로 되돌아가서 그는 언제나 위대한 작가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31)

<sup>30) &</sup>quot;Il y a tout de même des signes que les intellectuels retournent à Camus aujourd'hui. L'histoire leur a donné raison, avec la chute du Communisme. En réalité, c'était toujours à cause du problème communiste qu'il y avait de l'opposition contre Camus. C'était toujours et surtout quelque chose de politique, une sorte de malentendu. Camus avait dénoncé le goulag et les procès de Staline. Aujourd'hui, nous pouvons dire qu'il avait raison. Mais à l'époque, dire qu'il y avait des camps de concentration en URSS était blasphématoire, vraiment très grave."

<sup>&</sup>lt;Spike rencontre Catherine Camus> in http://www.spikemagazine.com/0899camu.htm

<sup>31) &</sup>quot;Et puis, pendant les années 80, ceux qu'on appellerait les jeunes philosophes de France, comme Bernard et Gluxman, ont remarqué que Camus avait dit des choses que personne ne voulait entendre dans l'arène politique. Ils disaient que c'était Camus qui avait raison et non pas ceux qui sont tombés sous l'influence de Sartre, ce qui était une soumission inconditionnelle au Communisme comme on l'avait vu en Union Soviétique. Et à partir de ce moment-là, les

그르니에의 권유로 <유럽문화협회>에 가입했던 카뮈가 이 협회의 모호한 정치적 성명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데서도 카트린 카뮈가 지적한 카뮈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침묵으로 시작하는 대화는 믿지 않습니다. 각 진영은 정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기술이나 도덕적 순응주의는 말하면서, 왜 미국의 정치적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비에트에 대해서는, 이 체제가 이룩한 성과는 말하면서 그만큼이나 많은 억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진정한 대화란 거짓말과 삭제가 있는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가 강제수용소가 있는 소비에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용적이라 생각합니다.32)

사르트르를 비롯한 당시 파리의 지식인들 대부분이 소련의 공산주의에 기울어 있던 당시 프랑스 지식사회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카뮈의 이런 문제제기가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sup>3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가 휩쓸던 소련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던진 것 또한 위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는 카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 것 같다.

opinions de Camus ont continué de se modifier jusqu'à maintenant. Les intellectuels de son âge qui ne l'avaient pas aimé avant l'apprécient maintenant. Donc nous revenons sur la littérature, et nous constatons quil était toujours un grand auteur." *Ibid.* 

<sup>32)</sup> Comprendre, (Venise,1952.7월호), in Herbert Lottman, Albert Camus, (Seuil,1978), p.508에서 재인용.

<sup>33)</sup> 그렇다고 『반항인』이 모든 지식인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았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조르쥬 바타이유는 카뮈에게 "당신의 「반항에 관한 고찰」을 잘 읽었습니다. 그 후속 편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당신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쓴 바 있다. Olivier Todd, *Ibid*, p.543 n 12.참조.

#### 4. 예언으로서의 직관

이런 카뮈의 생각은 여러 글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령 프랑시스 퐁쥬가 『사물의 편』 발간에 대한 축하 편지에서 카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과 같은 생산사회, 나아가서는 날이 갈수록 '급변한다'고들 말하고 있는, 그래서 '시급히' 또 다른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산다'고들 목청 높여 외쳐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귀담아 둘 만한 말이라 하겠다.

당신은 물론 시지프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sup>34)</sup>

여기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란 곧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해서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한다. 카 뮈의 이런 진술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볼, 달리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내쳐 달려오기만 한' 바쁜 삶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하여 요즘 유행처럼 대두되고 있는 '느리게 살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35)

<sup>34) &</sup>quot;Vous pouvez évidement alléguer que Sisyphe est paresseux. Mais quoi, ce sont les paresseux qui remuent le monde. Les autres n'ont pas le temps." <Lettre au sujet du <Parti Pris> de Francis Ponge>, 27 janvier 1943, II. p.1668.

<sup>35)</sup> 여기서 말하는 '바쁜 사람'들은 바로 위에서 카뮈가 비판하던 '실용주의'나 '효용성'에 젖어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 <참고문헌>

Camus, Albert : Essai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Todd, Olivier: Albert Camus, une vie, Gallimard, 1996.

Lottmann, Herbert: Albert Camus, Seuil, 1978

Jean-Paul Sartre, Situations II, Gallimard, 1987,

Jeanyves Guérin, "Camus, philosophe pour les classes terminales?" in Anne-Marie Amiot et Jean-François Mattéi ed, Albert Camus et la Philosophie, PUF, 1997,

Paul Ekins, *The Living Economy*, London, Routledge, 1986. in 『녹색평론』, 26 호.(1996년1-2월호)

<Spike rencontre Catherine Camus> in http://www.spikemagazine.com/0899camu.htm

<Résumé>

Une étude sur la perspective réelle d'Albert Camus
-A propos de l'Homme révolté-

## KIM, Jin-Chic Départ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et de la France

Albert Camus commença sa carrière par le journalisme. De son expérience il garde un sens aigu du concret, un respect du fait. On croit bien que s'il commenta souvent sur la réalité dans des divers articles ou dans des divers essais, c'est grâce à sa carrière. Dans ses carnets, il critiquait souvent 'l'abstraction', c'est-à-dire la rupture entre le réel et l'individu. Dans l'Homme révolté, il a critiqué le système totalitaire surtout celui de communisme de l'URSS. Il denoça camps de concentration de l'URSS. Mais sa critique radicale, antihistorique et antitotalitaire du marxisme n'était pas si accueillée.

D'après Catherine Camus, fille d'Albert Camus, sa critique a une faute principale d'être à contre-courant. Elle dit, "En réalité, cétait toujours à cause du problème communiste qu'il y avait de l'opposition contre Camus. C'était toujours et surtout quelque chose de politique, une sorte de malentendu. Camus avait dénoncé le goulag et les procès de Staline. Aujourdhui, nous pouvons dire qu'il avait raison. Mais à l'époque, dire qu'il y avait des camps de concentration en URSS était blasphématoire, vraiment très grave."

Dans l'Essai sur les quarante heures> qui est écrit à Alger, mais

aussi dans l'homme révolté, Camus critiqua que le chemin de la gauche était aussi dans la croissance de production que celui de la droite, c'est-à-dire du capitalisme. Il dénonça que les chemins de la gauche et de la droite sont mêmes, qui sont la culte de la téchnologie et de la production, qui sont mêmes dans le néo-libéralisme de nos jours.

Et nous pouvons ainsi constater que sa perspective et ses attitudes sur le réel ne sont pas loin de la nouvelle valeur <ralentissement>: 'vivre calmement' ou 'vivre pas rapidement', qui surgit auhourd'hui contre la méthode 'utilitaire' du néo-libéralisme. C'est pourqoui nous croyons que la perspective sur la réalité de Camus donne ainsi une importance de voir et interpréter la réalité de nos jours aussi. <>